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인민군 대가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홀륭히 건설된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립체전을 벌려 122호 양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양묘장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자고 하였는데 인민군 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관철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22호양묘장이 정말 요란하다고, 하나의 건축군이 형성되었다고,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 공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면서 한생토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현실로 꽂아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판수량, 영양액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도록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홀륭히 구축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단일한 수종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양묘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적인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의 혁명적인 지식인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식경

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출수 있게 건설된 122호양묘장의 년간 생산량은 2,000여만그루라고, 모든 도들에도 이 양묘장과 같은 토지절약형, 로력 절약형 양묘장을 건설하면 한해에 2억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도당위원회장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양묘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묘장

을 바라보시며 규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양묘장이 아니라 공원화된 하나의 거리같다고, 별세상에 온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직판물을 보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양묘장을 건설해 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122호양묘장건설을 통하여 당의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의의깊은 로력적선물을 드리였다고, 힘겨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바로

이것이 김정일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세계적인 양묘장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 설계단위, 시공단위, 과학연구부문들에 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산림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창인 양묘장의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과 7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생산계획을 수행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홀륭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에는 당에 대한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당에 무한히 충직한 공장로동계급이 안아온 혁혁한 성과에 접하고보니 온몸에 힘과 열정이 솟구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

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전으로 맡겨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때와 기질을 다시금 힘있게

파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기계설비들은 기술적성능이 대단히 좋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보조장비들도 그흔히 갖추고있다고 하시면서 자동화, 현대화수준에 있어서나 다목적측면에 있어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기계설비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강직장현대화공장,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계생

산량과 질은 주강품을 얼마나 생산하고 그 질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올해에 주강직장현대화공사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강직장현대화에서 중요한것은 생산 및 기술공정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는것이라고, 당에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주강직장을 현대화하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강직장현대화공사와 함께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 통합생산지휘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데 대한 문제, 공장로동계급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전히 국산화된 세계적수준의 기계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있는 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에게 정말 대만족했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의 의도에 맞게 현대적이며 성능이 높은 기계설비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밟들고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비극적인 민족분열의 역사가 세기와 년대를 넘어 어느덧 70여년의 년륜을 새기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라의 분憾을 영구화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강성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외세의 간섭과 횡포는 더욱더 우심해지고 있다.

이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사대매국행위 또한 도를 넘어선다.

결국 날이 갈 때마다 분憾의 장벽은 겹겹이 높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풍습으로 자자손손 이어온 조상대대의 고유한 민족성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이 나라의 통일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 이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분憾의 고통과 불행이다.

지속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담고 있는 사상의 현명성과 정당성, 뜨거운 민족애와 조국애로 차넘치는 열렬한 호소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진로를 명시한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입장과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대화와 협상을 조선반도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한다는 내외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당국자들을 비롯한 몇몇 분憾주의자들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속 빠들어진 망발들을 함부로 뱉어내면서 모처럼 마련된 좋은 분위기에 헤살을 놓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장을 내외에 밝힌다.

1. 그 누구를 불문하고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넘치는 절세위인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애족과 배족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통일로선과 방침은 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통일대강이다.

새롭게 제시된 주체적인 통일로선과 방침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민족 모두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수호하고 개척해나가며 나라의 통일과 강성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방도들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우리 민족이 괴로써 찾고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된 모든 리론 실천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이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 나가면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종착점에 순조롭게 가닿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탈선하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분憾과 전쟁위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여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도 자멸을 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가 대를 이어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고수하고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온 것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정세국면에서 또다시 대범하고 실천적인 통일방략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진실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엄연한 혁사의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새롭게 제시된 조국통일로선에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 나서야 한다.

더우기 새로운 주체적통일로선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의 원칙과 방도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민족공동의 대의이며 고귀한 전취물들이다.

온 민족이 지지하고 만인이 환영하는 공명 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 대하여 무작정 시비질하고 부정하는 놀음부터한다면 북과 남사이에는 더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혁신적인 제안을 애초부터 거부해나서는 것은 통일문제 해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과 분憾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변함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보일 따름이다.

물론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도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정책 아닌 『정책』들이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어느 것이나 다 본질에 있어서 『제도통일』과 『흡수통일』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민족의 힘이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아니라 한사코 적대시하며 동족사이의 평화와 단결이 아니라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만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 되었을 뿐이다.

제반 사례는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자주적이며 애국애족적인 우리의 주체적통일로선을 받아들어나가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롭게 제시된 우리의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이 가장 정당하고 더없이 공명정대한 통일방략이지만 만일 남조선당국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립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대하여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자주적통일로선과 방침을 민족최고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높이 떠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며 필요한 실천적조치들도 주동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다.

2.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드높이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은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憾의 슬픔에 몸부림치던 어제 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닌 위대한 민족으로 그 지위가 비상히 강화되었다.

새롭게 제시된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은 민족의 힘에 대한 강한 자신심과 우리 겨레 모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통일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이다.

이 땅에 태를 물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모든 것을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 민족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지상의 명령인 통일대진군에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수치스러운 외세공조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적인 반통일행위이다.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승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민족의 운명을 통락하고 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외세와 그 추종세력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통일은 그 누가 선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사생결단의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민족사적대업이다.

말로만 통일과 애국을 웨칠 것이 아니라 8천만 겨레 모두가 조국통일의 앞길에 박혀있는 대결과 적대의 가치를 하나라도 뽑아버리고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한 작은 디딤돌 한개라도 놓아나간다면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령마루가 가까워올수록 길은 더 가파롭고 바람은 더욱 세찬 법이다.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전례없이 준엄하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일의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수록 우리 겨레는 대단결의 위력을 친백배로 강화하여 그 억척의 힘으로 반통일의 광풍을 제압하고 길들여나가야 한다.

설사 지금까지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하여도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파지를 묻지 않고 주저없이 손잡아주고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대단결사상과 우리민족끼리리념의 참뜻이다.

우리에게는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의 자랑스러운 경륜과 전통이 있으며 이를 오늘의 조국통일투쟁에서 더욱 만발하게 발양시켜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자주정신이 맥박되는 민족대단결의 좋은 방도를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것도 함께 추진시켜나갈 용의가 있다.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폭풍처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3.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때에 동족끼리 대결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얹어매고 있는 것은 자멸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의 미래를 결정할 오늘의 한결 음이 중요하기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려는 구악무도한 대결책동이 범람하는 속에서도 모든 것을 덮어놓고 다시금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참다운 실천적방도들을 대범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핵폐기가 없는 평화공세는 무의미』 하다느니, 『진정성 없는 위장공세』 라느니 뛰니 하고 동족의 아량과 선의를 깊이 헤아려보지도 않고 무작정 막무가내식으로 중상모독하면서内外의 열망에 도전해나서고 있다.

지어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와 제의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국제공조』를 깨기 위한 솔수이며 『북이 핵을 포기 할 때까지 국제적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극히 무례

무도하고 도발적인 망발만 내뱉고 있다.

자기 앞에 차례진 행운의 기회도 잡을 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사와 치졸하고 속통바르지 못한 언사에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핵보유와 북남관계는 사실상 아무런 협판도 없으며 북남관계에 핵문제를 끌어들일 수록 궁지에 몰릴 것은 남조선당국일뿐이다.

이미 공인된 바와 같이 우리를 핵보유의 길로 떠밀고 무진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추동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고 그에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보수파당들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과 전쟁도발에 광분해온 자들이 그 만고 대죄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인 핵보유와 군사적조치들에 『도발』과 『위협』의 감투를 씌우며 오늘과 같은 책임적인 시각에 따른 대결각본을 외워내는 것은 파렴치하고 가소로운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역할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핵보유국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확고부동하다.

이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흐름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있으며 북남관계의 전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중대한 정세국면에서 민족의 제일중대사인 통일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일념에서 파거를 불문하고 남조선당국에 선의와 아량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그 손을 잡는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조국통일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혁사를 함께 써나갈 수 있지만 끝끝내 뿌리치고 등을 돌려댄다면 어떤 결과가 차례지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조국통일에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동족의 선의에 계속 대결로 엊서며 평화적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진다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넘어갈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엄숙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하며 자기의 운명을 관가를 할 오늘의 중대한 기로에서 심사숙고하여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전도에 찬란한 서광이 비치는 이 혁신적시각에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애족의 호소에 심장의 바동을 맞추고 통일위업의 파감한 실천으로 화답해나서야 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바라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믿고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현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지만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통일강국건설을 위하여 질풍노도쳐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조국통일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 위에 세계가 우러르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다.

얼마전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절세위인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 그 누구를 불문하고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넘치는 절세위인의 자주통일로 선과 방침을 일심전력으로 받아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한것은 온 겨례의 지향과 협약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성의 있는 립장과 애국의 일념의 반영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해방동 이들도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지금도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고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족의 통일열망을 반영하여 얼마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이 천명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 통일예로 나아가는 유일한 출로

제시되었다.

뜨거운 민족애와 열렬한 조국에 차넘치는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담고 있는 사상의 현명성과 정당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진로를 명시한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국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립장과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 위기 타개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에 역행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진정성』 타령과 같은 속찌물어진 망발들을 내뱉으면서 모처럼 마련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애족과 배족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긴다면 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시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이 천명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에서 새롭게 제시된 선과 방침은 북과 남의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련방제 실현방도들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우리 민족이 피로써 찾고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애국애족의 이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면 온 겨례가 바라는 통일은 순조로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거역하면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분열과 전쟁위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중에는 자멸을 면 할 수 없게 된다.

공화국이 세대와 세대, 연대를 이어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고수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온 것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정세국면에서 또다

시 대변하고 실천적인 통일방략을 제시한 것은 바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이 있고서야 제도도 있고 사상과 정견, 신앙도 있다.

피를 나눈 동족이 불신과 대립속에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한다면 놓아날 것은 우리 민족이요, 어부지리를 얻을 것은 외세뿐이다.

조선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진실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엄연한 혁사의 진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온 민족이 지지하고 만인이 환영하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 대하여 구태의연한 대결의식에 사로잡혀 벗어놓고 시비질하고 부정하는 놀음부터 한다면 북파 남사이에는 더이상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조국통일의 날도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공화국의 혁신적인 제안을

애초부터 거부해나서는 것은 근데 어리로 되었을 뿐이다.

통일문제해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과 분열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것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리익보다 일신의 안락과 집권야욕만 추구하는 매국배족의 추악한 속내만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물론 남조선에서도 통일과 관련하여 아무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본질에 있어서 『제도통일』과 『흡수통일』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민족의 힘이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아니라 한사코 적대시하며 동족사이의 평화와 단합이 아니라 전쟁과 분열만을 추구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짓들지 않은 이러한 정체아닌 『정책』들은 북남관계와 통일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더욱더 악화시키는 화근덩어리로 되었을 뿐이다.

이번에 공화국은 새롭게 제시한 통일로선과 방침이 가장 정당하고 더없는 공명정대한 통일방략이지만 만일 남조선당국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입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대하여서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립장을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공화국의 대법하고 아량있는 립장표명은 숭고한 애국애족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제반 사례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자주적이며 애국애족적인 공화국의 통일로선을 받아나가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말로만 통일을 외우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만 매여 달리는 그릇된 행동을 그만두고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공화국의 새로운 통일로선과 방침에 적극 동조해나서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철

## 평화적통일의 기회를 차던지지 말라

최근 발표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할 것을 중요하게 천명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낼 것을 바라는 온 겨례의 염원을 반영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이 제시되었다.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울려나온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70여년에 걸치는 조국통일운동의 혁신적 경험과 교훈, 북과 남이 치한 오늘의 구체적 현실과 겨례의 지향 등을 반영하여 나라의 통일을 가장 끌어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하여 나오자마자 내외의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온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공화국의 성의 있는 립장과 적극적인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비극적인 민족분열의 혁사는 어언 70여년을 지속하고 있다. 이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 온 북과 남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이 국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속에서 지금처럼 남조선당국이 『체제대결』에만 몰두하게 된 불신과 대결의 감정은 더욱 증폭되고 총돌이 격화되어 나중에는 전쟁의 재난밖에 일어날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공화국이 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끌어바른 진로를 명시한 것은 북남사이에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날로 높아가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 전쟁의 참화를 막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어 민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고 민족운명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명감의 발현이다.

오늘 민족의 통일열망은 하늘에 닿고 있으며 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하기에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그 누구를 불문하고 새롭게 제시된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일심전력으로 받아들여나가며 온 겨례가 신심드높이 조국

통일의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 전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남조선당국의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촉구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있다.

이제부터라도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자주와 대단합을 도모하면서 통일에로 가겠는가, 아니면 동족과 계속 대결하면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가겠는가.

전자의 길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겨례와 민족사의 찬양을 받을 길이라면 후자의 길은 두고두고 민족의 저주를 받고 비참한 자멸에로 질주하는 길이다.

공동성명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조국통일에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으며 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의 선의에 계속 대결로 엊서며 평화적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차던진다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화국 천만 군민의 한결 같은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엄숙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하며 자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오늘의 중대한 기로에서 심사숙고하여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온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조국통일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구이다. 화해하고 단합하지 않고 계속 불신하고 대결하며 갈라져 싸우기만 한다면 언제가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민족적 참화만 초래될 수 있다.

하기에 북과 남은 2000년 6. 15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천명하고 북측의 낯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자주와 민족단합, 평화보장과 련방제통일이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의 길이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민족이 가는 통일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자주가 아니라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민족자주는 어제도 오늘도 채일도 영원한 우리 겨례의 지향이며 생명이다. 민족자주를 떠나 겨례의 운명도 통일도 강성번영의 미래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조국통일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구이다. 화해하고 단합하지 않고 계속 불신하고 대결하며 갈라져 싸우기만 한다면 언제가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민족적 참화만 초래될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민족의 의사와 험원에 맞게 북과 남의 합의를 통해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의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성의 있는 립장과 자세를 잘 알 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에 다같이 리롭고 온 겨례가 지지 공감하는 민족자주와 단합의 궤도에 주저없이 들어서야 한다.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에 있는 지금에 와서도 공화국의 정당하고 진정어린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결과 불신을 끌어들이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공화국과 전쟁을 해서라도 『제도통일』의 어리석은 기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조국통일에는 평화적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으며 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남조선당국이 『핵폐기』 없는 평화공세는 무의미하다느니, 『진정성 없는 위장공세』이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국제공조를 깨기 위한 술수』라느니 뭐니 하며 공화국의 선의의 손길을 뿌리치고 계속 반공화국 대결과 『제도통일』의 길로 내닫는다면 그로 인해 차례로 후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책임적인 리성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우리 민족의 분별은 그 어떤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빚어진 비극이다.

민족분별이래 오늘에 이르는 70여년을 헤아리는 기나긴 세월은 북과 남이 외세를 반대 배격하고 민족의 힘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 역사이다.

다른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하게 견지하신 조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을 조국통일 문제 해결의 근본으로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통일애국의 전로정에서 시종일관 자주의 로선을 확고하게 견지하시였다.

지난 세기 1970년대초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 정치 회담 차로 남측 대표들이 평양에 왔을 때였다.

그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 위대한 실천으로 가리켜준 민족자주의 길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여 대화를 하며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단결의 3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수령님께서 통일 문제 해결에서 확고히 견지하신 절대불변의 근본립장이였다.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열렬한 민족애를 지니신 그이의 자주의 리념은 주체 62(1973)년 6월 23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민족의 분별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 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각계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현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련방제 실시, 단일한 고려현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방안은 철두철미 자주의 리념이 구현된 가장 공명 정대한 통일제안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며 분별의 비운이 짙어갈수록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두고 심려가 더 크신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이 자주와 민족 대단합의 리념 아래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꼬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1978년 11월 어느 날 재미동포 최덕신 선생을 만나시였을 때 우리 민족의 분별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지만 조선의 통일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 문제이라고, 우리는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이듬해 5월 조국을 방문 중인 국

제태권도련 맹총재 최홍희 선생을 만나시였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 영구 분별의 위험을 막고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자면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국통일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를 통일하지 못했으니 더 못자고 있다, 통일된 다음 밀렸던 잠을 한번 푹 자고 싶다, 우리는 꼭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어느 해 여름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에도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이의 절절한 헌원과 크나큰 로고가 력력히 담겨져 있다.

1990년 8월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만나시였을 때에 이며 그때 주석님께서 하시는

연설을 30분 동안만 생중계하면 몇 달 안으로 통일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그 무렵 남조선인민들과 언론에서 나온 말이다.

민족분별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북남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혁사적인 문건을 보아주시고 활달한 편체로 『김일성 1994. 7. 7.』라고 써 넣으신 수령님께서는 동녘 하늘에 펴여 오르는 새벽 노을을 바라보시며 우리 계례가 일일 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만 확고하면 외세의 간섭도, 서로의 대결과 불신도, 동족상쟁도 있을 수 없고 화해와 단합도 능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이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였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조국통일을 생각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 드림없는 의지와 크나큰 로고, 한없이 넓은 도량과 대용단에 의하여 마침내 조국통일 위업 실현에서 혁사적 계기가 될 북남최고위급 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주석님께서 서울에 나오시면 아마 5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본사기자 리설

## 강국건설의 봄우리

드르릉—

위대한 혁사적 사변의 대동을 알리며 봄우리가 울린다.

이것은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갖은 고립과 압살, 제재의 얼음산을 뚫이며 사회주의 강국의 새봄을 알리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진막강한 힘을 떨치며 무섭게 돌진하는 인민의 기상은 지금 이 땅 그 어디서나 천지를 진감하는 위대한 전변과 창조를 안아오고 있다.

이 땅에서는 지금 매일 매 시각 세계적인 창조물들이 태여나고 있으며 또 불가능을 모르는 새로운 인간들이 탄생하고 있다. 제 손으로 현대적인 제품들과 기념비들을 창조한 사람들은 모두가 봄도 마음도 새롭게 태여나 이 세상 그 어떤 재재나 봉쇄도 무서워하지 않는 정신력의 강자, 기술력의 강자들로 되었다.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바라보는 개발자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보다 더 훌륭하고 현대적인 제품도 능히 만들 수 있다는 애심만만한 배심이며 그것을 리용하며 감탄하는 인민의 눈에 비친 것은 자기들도 최첨단돌파의 기적을 창조하겠다는 자신심과 분발이다.

어제는 주체 위성이 우주에 치솟고 자기의 힘파 기술로 만든 비행기와 새지하전동차가 태여나던 땅에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수소탄의 장엄한 희생에 화답하며 보기만 해도 멋있고 성능높은 새형의 브라보르, 화물자동차,

빠스, 5,000t급 무역 짐배들이 련이어 태여나 사람들 기쁘게 하고 있다.

인민의 기쁨과 환희, 이것은 단순히 현대적인 창조물을 만들어낸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오는 깊은 궁지와 자부심이며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100% 자기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창조물을 내놓은 승리자의 기쁨이다.

이것은 반공화국적 대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맞아나가는 강자의 통쾌함이며 아직까지다는 알 수 없었던 자기 힘의 발전, 원쑤들의 그 어떤 방해와 봉쇄 속에서도 반드시 자력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신심과 략관, 강국의 그날에 향유하게 될 행복한 래일에 대한 희망에서 오는 끝없는 희열이다.

그들은 이렇게 정신력의 강자로 자라났으며 위대한 인민으로 되었다. 어제도 위대하였지만 오늘은 더 위대한 인민으로 역세계 일어나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위대한 인민에게는 위대한 령도자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펴눈물의 언덕에서 인민을 안아 유키시였고 그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의 압살공세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그것은 바로 자강력제

일주의 정신이다.

지난해 10월 어느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 전기기 판차련 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 전동차를 보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지하 전동차를 보시며 이번에 이루어진 성과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지하고 로동계급의 무공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오늘 반공화국적 대세력의 책동은 악랄하고 짐요하다. 그러나 자강력제 일주의 정신으로 새것을 창조하며 만난을 헤쳐나가는 공화국의 인민의 마음은 지금 봄날처럼 따스하며 환희롭다. 그것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자강력제 일주의 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못해낼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도 그것을 승리에로 지향시키고 이끌어주는 령도자가 위대할 때 비로소 빛을 뿐리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 따라 세상에 없는 천리마시대, 속도전의 시대를 열어놓은 전세대들의 전통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밀에 빛나게 계승되고 있으며 이 땅에 눈부신 기적의 시대, 만리마의 시대를 안아오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최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

며 새로 제작한 기계 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만든 기계제품들은 하나와 같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 할 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하시였다.

오늘 반공화국적 대세력의 책동은 악랄하고 짐요하다. 그러나 자강력제 일주의 정신으로 새것을 창조하며 만난을 헤쳐나가는 공화국의 인민의 마음은 지금 봄날처럼 따스하며 환희롭다. 그것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자강력제 일주의 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못해낼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가장 힘있는 존재는 사람이며 인민대중의 힘처럼 무궁무진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도 그것을 승리에로 지향시키고 이끌어주는 령도자가 위대할 때 비로소 빛을 뿐리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 따라 세상에 없는 천리마시대, 속도전의 시대를 열어놓은 전세대들의 전통은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밀에 빛나게 계승되고 있으며 이 땅에 눈부신 기적의 시대, 만리마의 시대를 안아오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최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연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루는데서 들키나가야 할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민족자주, 이것은 조국통일 3대 현장에 관통되여 있는 기본 정신이며 통일 운동의 생명선이다.

흘러온 민족사와 장장 70여년을 헤아리는 분별의 혁사를 되새겨보느라 민족이 자주로 살면 흥하고 강해지지만 사대와 외세의 존에 매달리면 망하고 만다는 피의 교훈이 새겨져 있다.

반민년의 유구한 혁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설음을 강요당해야 했던 그 비극도 사대와 외세의 존 때문이였다.

조선봉건왕조 말기는 사대주의가 국도에 달했던 시기였다. 봉건통치 배들은 정권 쟁탈에 눈이 어두워 제가끔 청나라와 조씨야, 일본과 미국 등 큰 나라에 가붙어 사대 정치를 일삼았다. 그러다 보니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웅궁을 지켜주는 형편이였고 친로파가 득세하면 조씨야 군대가 임금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결국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를 통제로 강탈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나라의 독립을 강대국에 청탁하여 이루어보려고 이역땅에까지 찾아갔지만 그 어느 강대국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비참을

상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분별의 비극을 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외세 때문이다. 외세의 간섭이 없었다면 해방이라는 감격우에 분별이라는 불행이 덧씌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이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강탈당했을 때에도 구원은커녕 동정조차 하지 않은 외세였고 또 미국에 의해 해방조선이 둘로 갈라진 이후 오늘까지 우리 민족의 분별에 대하여 함께 가슴아파해주고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외세도 이 행성에 없다.

하기에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의 첫 기슭에서 조국의 통일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사상을 일관하게 견지해오시였다.

남녘의 한 인사를 만나시었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조선 사람에게는 미국 옷도 맞지 않고 쏘련 옷도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외세에 기대를 걸고 외세를 믿을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단합된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사적인 4월 남북련석 회의가 끝난 다음날 모란봉극장에서 남조선 대표들과 함께 련석 회의 경축 공연을 관람하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 춤이 제일 좋다고, 응당 조선 사람은 조선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 어떤 외세도 상대가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 힘을 좀 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 존을 철저히 반대 배격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기 린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운명을 똑바로 개척할 수 없듯이 민족이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면 민족의 운명, 통일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없다. 아직까지 이 행성 위에는 외세를 믿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해결한 틈이 없고 외세에 추종하고 의지한 것으로 하여 수치와 패배를 보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어떤 외세도 상대가 자기들보다 강대해지고 우월해지는 것을 걸고 바라지 않는다. 오직 민족자주, 민족자강의 힘만이 남들보다 강대해지고 우월해지는 것이다.

절세위인들께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국통일의 기치로 나봇기계 해주시는 자주의 사상, 민족자주에 통일이 있고 민족번영의 창창한 앞날이 있다.

지금은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자주의 강령 따라 조국통일을 앞당겨올 든든한 배심으로 충만되어 있다.

민족자주로 조선민족은 이 땅에 통일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 그 위상을 만방에 힘 있게 펼쳐갈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절세위인의 혁명한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사적인 보고를 무한한 경정속에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보고에서 제시된 파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줄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북과 남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루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사적인 보고에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여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는 민족사적사명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이며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통일대강이다. 또한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민족모두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수호하고 개척해나가며 나라의 통일과 강성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 담고있는 사상의 혁명성과 정당성, 뜨거운 민족애와 조국애로 차넘치는 열렬한 호소성,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통일의 진로를 명시한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때에 유독 남조선당국자들을 비롯한 몇몇 분별주의자들만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속찌물어진 망발들을 함부로 내뱉고있다. 온 민족이 지지하고 만인이 환영하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 대하여 무작정 시비질하고 부정하는 놀음부터 한다면 북과 남사이에는 더이상 아무것도 할것이 없게 될것이다. 동족의 혁신적인 제안을 애초부터 거부해나서는것은 통일문제해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과 분별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변함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보일따름이다.

새로운 주체적통일로선에 판통되어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의 원칙과 방도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민족공동의 대의이며 고귀한 전취물들이다. 이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면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종착점에 순조롭게 가닿을수 있지만 여기에서 탈선하면 우리 민족은 당시적인 분별과 전쟁위험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여날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도 자멸을 면할수 있게 되어있다.

진실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엄연한 혁사의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새롭게 제시된 조국통일로선에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나서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민족분별의 70여년 혁사가 보

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

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

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친미사대근성을 버리고 굴욕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동족을 모해하는 수치스러운 외세공조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빌양시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잊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

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파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이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파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혼왕,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별리간

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련방제방식의 통일만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순조롭게 성취하는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다.

북파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대로 련방제방식의 통일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루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実行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분열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나라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의 구성이 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한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최광혁

## 평화보장은 민족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

혁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친명되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날로 고조되는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평화애호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우리 민족이 미국에 의해 전쟁의 재난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전쟁위험은 가서지기는 고사하고 날로 증대되고있다. 이미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재난을 겪었고 갈수록 짙어가는 전쟁위험속에서 살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그 누구에게나 평화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현재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없다. 정전은 결코 공고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미국에 의해 오래전에 유명무실해졌다.

반세기이상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비정상적인 정세가 지속되고있는 것은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로 되고있다.

미국은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여년이상이나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왔다. 올해에도 미국은 『전략자산투입』이요 뭐요하면서 남조선호전세력과 함께 대규모 『키리졸브』, 『독수리 16』 등 동전쟁연습을 근 두달동안이나 발광적으로 벌리고 『참수작전』, 『내륙에로의 진공작전』 등 북침기지를 날낱이 드러냄으로써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겸은구름을 뒤덮어놓았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고 해마다 수많은 무력이 동원되어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북침합동전쟁연습이 어느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담보할수 없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경내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며 참혹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법회들에서는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위원회 교직자들, 각지 사찰의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들에서는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북과 남의 불교도들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담은 공동

을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미국은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여년이상이나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왔다. 올해에도 미국은 『전략자산투입』이요 뭐요하면서 남조선호전세력과 함께 대규모 『키리졸브』, 『독수리 16』 등 동전쟁연습을 근 두달동안이나 발광적으로 벌리고 『참수작전』, 『내륙에로의 진공작전』 등 북침기지를 날낱이 드러냄으로써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겸은구름을 뒤덮어놓았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고 해마다 수많은 무력이 동원되어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북침합동전쟁연습이 어느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담보할수 없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경내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며 참혹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법회들에서는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위원회 교직자들, 각지 사찰의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들에서는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북과 남의 불교도들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담은 공동

을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미국은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여년이상이나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왔다. 올해에도 미국은 『전략자산투입』이요 뭐요하면서 남조선호전세력과 함께 대규모 『키리졸브』, 『독수리 16』 등 동전쟁연습을 근 두달동안이나 발광적으로 벌리고 『참수작전』, 『내륙에로의 진공작전』 등 북침기지를 날낱이 드러냄으로써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겸은구름을 뒤덮어놓았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고 해마다 수많은 무력이 동원되어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북침합동전쟁연습이 어느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담보할수 없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경내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며 참혹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법회들에서는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위원회 교직자들, 각지 사찰의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들에서는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북과 남의 불교도들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담은 공동

을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미국은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여년이상이나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왔다. 올해에도 미국은 『전략자산투입』이요 뭐요하면서 남조선호전세력과 함께 대규모 『키리졸브』, 『독수리 16』 등 동전쟁연습을 근 두달동안이나 발광적으로 벌리고 『참수작전』, 『내륙에로의 진공작전』 등 북침기지를 날낱이 드러냄으로써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겸은구름을 뒤덮어놓았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고 해마다 수많은 무력이 동원되어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북침합동전쟁연습이 어느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담보할수 없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경내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며 참혹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법회들에서는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위원회 교직자들, 각지 사찰의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들에서는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북과 남의 불교도들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담은 공동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당국도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펼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을 보유한 최강의 억제력을 갖추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땅도 한순간에 불바다에 잠글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어놓고있다.

공화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평화를 구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는 침략전쟁을 강요한다면 공화국은 단호하고도 무자비

# 《금컵》이라는 이름과 함께 빛나는 공장

◆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아서 ◆



풍치수려한 평양의 청춘거리에 들어서면 모자형으로 된 4층짜리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척 보기에도 정갈하고 아담한 느낌을 주는 이 건물이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다.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피로회복에 좋은 갖가지 음료들과 영양가 높은 빵, 떡제품들 그리고 사탕, 파자, 껌을 비롯한 수백 가지에 달하는 각종 식료품들이 수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그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일떠선지는 몇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절세위인들의 손길을 떠

나오늘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것이 바로 이 공장의 역사이다.

나라의 체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체육선수들에게 영양가가 높은 식료품을 공급 할수 있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공장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한번 나와보시겠다는 은정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현실로 꽂아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체육인들의 영양 관리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

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껌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식료품들을 개발생산할데 대한 문제,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체육부문뿐아니라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공장은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에 과학적이면

서도 예측가능한 통합생 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으며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식료공장, 체육인들과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는 갖가지 맛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꽝꽝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지난 1월 또다시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진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이 공장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고, 나라의 식료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도약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 기준이 마련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식료품생산에서 끊임없는 성과를 이룩하여 식료공업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금컵』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그 이름을 빛내이고 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 맛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

공장의 제품전본실을 찾은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를 안고 생산한 맛좋고 다양한 식료품들을 볼수 있었다.

제품전본실에는 공장에서 만든 각종 빵류들과 영양음료들, 파자류, 떡류를 비롯하여 수십여종의 300여 가지 식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식료품들의 위생안전성을 위주로 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전시된 제품전본실에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제 7차대회를 맞으며 새로 개발한 식료품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하나의 종류,

한가지 식료품을 놓고 도 더 맛좋고 영양가가 높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의 낯과 밤을 이어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뒤기파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닭고기 맛튀기파자, 치즈맛튀기파자, 불고기맛튀기파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맛을 내는 뒤기파자들은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그 맛이 좋아 널리 소문난 빵제품들은 물론이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떡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호평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공장에서는 우리 민족음식의 하나인 찰떡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과 알맞춤한 크기로 빚어 포장하여 누구나 먹기 좋게 만들고 있었다. 쫄깃쫄

본사기자 강류성

## 자랑할 만한 멋쟁이 공장

았다.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부지면적과 로력을 늘이지 않으면서도 제품생산을 종전보다 1.5배로 늘이였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의 『전방사령부』로 불리우는 종합조종실에 들렸다. 이곳에서 책임기사는

종합조종실에 공정관리, 공정분석, 동력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품질관리, 영상감시체계 등이 그흔히 갖추어져 있다고 말해 주었다.

공장에는 식료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와 기호가 끊임없이 높아가는데 맞게 과학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여있었다.

이어 우리는 생산현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책임기사는 우리에게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 생산현장들에서는 껌, 파자, 사탕, 빵, 햄 등 맛좋고 영양가 높은 당파류들과 식료품들이

자동호흡선을 따라 줄줄이 생산되여나오고 있었다.

고도로 집약화된 생산공정들을 꾸려놓아 기대들마다에서 갖가지 식료품들이 련이어 생산되어 나오는 광경은 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생산현장을 격폐시키고 현대적인 분석설비들과 위생통파시설들, 공기정화설비 등을 그흔히 갖추어놓아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생산현장의 공간을

리용하여 특색있게 설치해놓은 미끄럼식운반기였다. 작업반들마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층마다에 있는 미끄럼대를 타고 아래층에 있는 제품창

고로 줄지어 내려가고 있다. 폭포처럼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은 정말 장쾌하다고 할지 하여튼 로력과 전기를 거의나 쓰지 않는 저력절약형, 에너르기절약형의 운반기가 틀림없었다.

결국 고도로 자동화되고 집약화된 생산공정은 이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멋쟁이공장으로 만들수 있었다.

참으로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지역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나라의 식료공업발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현대화된 공장을 돌아보며 자기의 것,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궁지와 확신을 깊이 새겨안으며 우리는 그 이름도 정다운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철호



## 누구나 사색하고 창안한다

만들어 생산하고 있다.

종업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견문을 넓혀주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 1~2달 혹은 6개월 정도의 강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주문에 의한 새 제품개발에도 힘을 넣고 있다. 매일 판매되는 제품의 량을 보고 수요를 예측하며 수요가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생산을 중지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자신들을 따라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

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 사색이 없는 하루란 없다.

기자: 로동자들이 현장에서 과학기술보급실과 협회를 가지고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

지배인: 그렇다. 우리 공장에서는 현장에 판형 컴퓨터를 도입하여 과학기술보급실과 협회를 통하여 과학기술보급실과 협회를 통하여 일을 하다가도 새로운 창상을 떠오르면 과학기술보급실까지 가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내용을 원격으로 문의도 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장에 과학기술보급실

을 옮겨놓은 것이나 다른 없다. 그렇게 하니 모든 종업원들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려는 열의도 높아질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기자: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창안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배인: 우리 공장에서 수백 가지나 되는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퍼타는 사색과 노력의 결과이다. 기자동무도 공장을 돌아보았겠지만 작업장이 사방으로 보이게 공중에 종합조

종실을 설치할 대담한 창상을 한 것도 우리 종업원들이이다. 이렇게 하니 부지면적은 전혀 늘이지 않으면서도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새로 개간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설치하여 적은 인원을 가지

고도 수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종합조종실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손금보듯 들여다보며 조종하고 지령을 주니 생산실적도 부쩍 올라간다.

웃총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아래 층 제품창고까지 저절로 가닿도록 웃총과 아래 층을 연결하는 미끄럼대를 설치한 것은 리정호동무의 창상이다.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기와 로력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현장에서 창고까지 날라갈 수 있게 된 미끄럼대를 보

시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래 사람들을 위한 생각이 극진한 사람만이 이런 훌륭한 창상을 할 수 있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공장일군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였다. 하기에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공장의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고 제품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한다. 우리는 세계와 도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식료공장으로 되기 위해 치밀한 분석과 검사를 통해 맛과 질, 상표도안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하겠다.



##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 세계적인 기억 대가들을 키워내는 교육자

오래 전부터 불리는 사람들이 바라던 꿈이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신비한 속도능력에 있다.

공화국에는 뛰어난 속도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내고 있는 공로있는 교육자가 있다. 평양제1중학교의 속독교육연구실 실장인 박사 김정순선생(53살)이다.

### 1분동안에 수만자를 읽는 비결

이끼풀은 지붕을 떠이고 혁사의 종전자마냥 서 있는 보통문을 유유히 감돌아 흐르는 보통강기슭의 톡음우거진 명당자리에 평양제1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나라의 수재교육의 원종장인 평양제1중학교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과발사에 크게 기여한 청년과학자들과 국제수학올림픽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수재들을 배출한 자랑을 안고 있다.

그런 인재들이 속도능력까지 겸비한다면 그야말로 달리는 준마에 날개돋친 격일것이라는 생각을 굳히며 기자가 평양제1중학교의 속독교육연구실에 들어서니 서정적인 음악을 들으며 학생들이 한창 속독훈련을 하고 있었다. 책갈피를 번져가며 두툼한 소설책을 단숨에 읽어내려가는 학생들, 교예단의 요술사마냥 수십조의 주제장을 주렁이 펼쳐들고 기억하거나 속셈훈련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 그들은 아예 주위환경과 담을 쌓은듯싶었다.

리해되지 않는 것은 속독교육연구실에 올리는 노래소리였다. 고도의 사색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속독훈련에 방해되지 않을까… 이때 기자와 인사를 나눈 김정순실장이 『음악은 속독훈련과정에 생기는 정신육체적피로를 해소시키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해주어

기자 : 김일성종합대학 지능태양빛전지제작소에서 현대적인 태양에너지제작제품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조총남 : 우리 지능태양빛전지제작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이 자연에네르기부문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도입하여 선진적이고 높은 품질을 담보하는 태양빛에너지제작제품과 발전체계들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제작하는 태양빛전지판들은 깨지거나 금이 간것, 오염물질이 들어간것이 없이 최고급소편들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생산하는 태양빛전지판들은 그 성능이 뛰어나고 기술적안전성이 담보되어 수명이 25년 이상에 달한다.

우리 제작소의 태양빛전지제작제품들의 최대 출력값은 250W태양빛전지판일 때 평균 270~280W, 지어

있다는것이었다.

그러면서 김정순실장은 방금 속독을 끝낸 박천봉(15살) 학생의 실례를 들었다. 그 학생이 속독훈련을 하기 전에는 1분동안에 400여자(소설책 한쪽지)밖에 읽지 못했지만 지금은 1분에 3만자를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70% 이상 소화한다는것이었다.

▶속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화시대에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더 짧은 시간에 자기의 것으로 습득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속독이 차지하는 위치는 자못 크다.』

가령 어떤 전문가가 어느 한 기술개발에 필요 한 문헌 45만건을 읽어야 한다고 하자. 그 전문가가 한시간에 4건씩, 매일 10시간을 읽는다고 하면 45만건을 읽는데 대략 56년이 걸린다. 하지만 속독을 하면 몇개월~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속독의 의의는 단지 글을 빨리 읽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는데만 있지 않다. 두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고도의 집중력과 비상한 기억력, 빠른 속셈력, 높은 관찰력, 창조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속독능력이야말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라는것이 김정순실장의 견해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고도의 정보습득능력과 과학적 직감력을, 일군들에게는 창조적인 사업설계능력과 사업에서의 유연성을, 체육인들에게는 사고와 동작의 민첩성과 높은 득점능력을, 예술인들에게는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감정표현력과 기억력을, 군사자휘관들에게는 작전지휘능력을, 병사들에게는 사격술

을 높여주고 교원들이 효과가 큰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등 속독능력의 활용분야에는 제한이 없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

에서 인재육성을 국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문제로 내세우고 인간의 두뇌를 비상히 활성화시키는 속독교육과 연구에 큰 힘을 넣고 있는 것이다.

다 전국기술대학부문 대학생속독경연과 중학교학생들의 속독경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책읽기경연, 기억경연, 속독경연들을 통하여 속독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김정순실장은 전국기술대학부문 대학생속독경연을 세계지력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와 꼭같은 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연과정에 세계적수준의 뛰어난 속독술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과학기술강국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연구개발능력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세계를 암도해나갈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속독은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 예로부터 조선사람은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 무궁무진한 두뇌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속독열풍을 세차게 일으킬 때 조국의 전진속도는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나라의 수재교육발전을 위한 길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남긴 김정순실장.

오늘도 그는 새 세대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강국상을 실력으로 받드는 뛰어난 인재들로 키우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흥범식

## 나라의 첫 속독박사

평양제1중학교의 속독교육연구실 김정순실장으로 말하면 속독교육을 주제적립장에서 새롭게 체계화하고 과학화하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의 첫 속독박사이며 명망높은 교육자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제1중학교에서 연구사로 일하던 김정순실장이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속독을 연구하기 시작한것은 10여년전부터이다.

그때를 회상하며 김정순실장은 말하였다.

『막상 결심하고 달라붙었으나 연구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았다. 속독에 초학도인데다가 참고할 자료조차 변변한것이 없어 더욱 안타까웠다.』

그가 단편적인 자료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 주신 속독에 대한 도서가 번역출판되었다.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꼭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심정이었다고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김정순실장은 낮에 밤을 이어 사색과 탐구의 나날을 이어갔다. 이 날 그는 『우리의 현실, 우리 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속독방법』을 찾기 위해 속독술과 속셈술, 기억술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론문 『속독연구』를 완성 할수 있었다.

속독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자 그는 속독강의와 강습을 통해 학교들에서 속독교육을 일반화 할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갖추 어나갔다. 하여 대학과 제1중학교, 외국어학원들에 속독소조가 조직되고 전국체벌위에서 대학생들과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속독경연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최근 김정순실장은 전 6권으로 된 도서 『두뇌개발속독』을 집필하여 내놓았다. 기초편과 어린 이용, 속셈편, 기억편, 독서편(1, 2)으로 된 『두뇌개발속독』은 세계를 향해나가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리상을 안은 청소년 학생들,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속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 세계를 앞서나갈 속독명수들로

기자는 김정순실장에게서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뇌사유경기대회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을수 있었다.

『세계적규모의 대뇌사유경기대회로서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와 세계지력올림픽경기대회가 있다.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는 1991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단어기억, 10진수기억, 2진수기억, 주폐기억, 얼굴과 이름기억,

추상도형기억 등을 기억 종목으로 하고있다. 기억 시간은 5분, 30분, 1시간이며 그에 따라 기억량이 다르다.』

4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세계지력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진행되는 기억경기대회들도 날이 갈수록 열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의 속독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나라에서도 해마다

히 보장하고 있다. 봉사부문과 기업소, 기관들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주문이 많다. 지금까지 여러 단위에 제작소의 태양빛에너지발전체계를 생산하여 설치해주었는데 반영이 아주 좋다.

우리가 만든 제품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른 나라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기자 : 이곳에서 만든 태양에너지기기제품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

조총남 : 우리가 생산하는 고성능, 고품질, 기술적안전성이 담보된 태양빛전지판과 각종 용량의 변류기, 태양전지판으로부터 축전지들을 충전할수 있는 고성능충전조종기, 태양빛추종기 등의 태양빛에너지발전체계를 사용하여 설치해 주고 있다.

기자 : 지능태양빛전지제작소의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된다.

조총남 : 우리는 태양에너지기기제품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과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규

## 질좋은 태양에너지제품을 더 많이

\* 김일성종합대학 지능태양빛전지제작소의 조충남책임기사와 나눈 대담 \*

300W가 넘게 나오는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250W 태양빛전지판이 최고의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자 :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조총남 : 우리 제작소에서는 생산공정의 무진화와 온습도조화체계를 실현하였으며 현대적인 측정설비들을 갖추어놓고 태양전지판의 성능과 품질을 검출하여 사진으로 보여주

사하고 있다.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상점에서 사 가지고 온 수입품들에 대한 검사도 해주고 있다.

고효률태양빛전지판 품질검사는 EL검사를 통하여 태양빛전지판에 작용시켜 완성된 제품에 대한 전류전압측정, 전력전압측정, 단락전류, 최적전압, 최적전류, 최대출력, 변환효율 등의 파라미터값들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철저히 표준검사조작하에서 진행하여 이때 검출되는 최대출력값이 정격용량값이상이여야 합격품으로 인정된다.

고효률태양빛전지판은 수명이 25년이상인 고품질, 고성능제품으로서 정격용량출현 상태에서 15년동안, 정격용량의 80%출현상태에서 25년 품질을 보증한다.

이 없는 최고품질임을 담보하고 있다.

고효률태양빛전지판 성능검사는 태양빛을 모의하여 태양빛전지판에 작용시켜 완성된 제품에 대한 전류전압측정, 전력전압측정, 단락전류, 최적전압, 최적전류, 최대출력, 변환효율 등의 파라미터값들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철저히 표준검사조작하에서 진행하여 이때 검출되는 최대출력값이 정격용량값이상이여야 합격품으로 인정된다.

고효률태양빛전지판은 수명이 25년이상인 고품질, 고성능제품으로서 정격용량출현 상태에서 15년동안, 정격용량의 80%출현상태에서 25년 품질을 보증한다.



아니라 태양빛추종기와 태양에너지발전체계용 변류계도 만들고 있다.

기자 : 이곳에서 만든 태양에너지기기제품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

조총남 : 우리가 생산하는 고성능, 고품질, 기술적안전성이 담보된 태양빛전지판과 각종 용량의 변류기, 태양전지판으로부터 축전지들을 충전할수 있는 고성능충전조종기, 태양빛추종기 등의 태양빛에너지발전체계를 사용하여 설치해 주고 있다.

기자 : 지능태양빛전지제작소의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된다.

조총남 : 우리는 태양에너지기기제품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과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규

소결정형태양빛전지와 함께 제2세대 박막형태양빛전지, 제3세대 태양빛전지, 색소증감형태양빛전지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첨단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

# 민주의 동토대에서 수난당하는 노래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지 3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한 기념식이 18일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광주인민봉기 참가자들의 민주화정신과 넓은 상징인 『님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되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끝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창을 『불허』 한 것이 보호처라고 하지만 그 뒤에 남조선집권자가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하다면 현 집권자는 왜 올해에도 남조선인민들이 바라고 야당들이 강하게 요구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끝끝내 가로막았는가.

걸으론 『국론의 분별』이니 뭐니 하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인민봉기 이후에 나온 운동권가로서 자주와 민주를 바라고 통일을 열망하는 남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양하고 또 불리야 할 좋은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래를 이어온 저리콩 시비하는 것이야말로 어제날 의로운 광주의 항쟁용사들을 『폭도』로 모독한 전두환군부살인악당들과 다를바 없다.

남조선집권자가 이 노래의 제창을 허용하지 않은데는 노래도 노래지만 그 노래가 상징하는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그의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시작이 짙게 깔려있다.

그는 『유신』 독재통치기간 독재권력의 향수를 누리며 살아왔다. 『유신』 독재가 거꾸러지고 민주화의 열망이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뿐어져 나오자 그것을 총칼로 짓누르고 군부파쑈 독재를 다시 수립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 치열리는 광주대학살이었다. 전두환독재의 출현은 『유신』 독재의 계승이었다.

전두환이 미국의 비호밀에 총칼로 모든 것을 빼앗고 『대통령』 명거지까지 쓰자 이 살인악당을 『오빠』라고 부르며 매달린 것이 당시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 놓여있던

현 집권자이다.

더우기 현 집권자는 애비의 본을 따서 집권한 몇 해간에 남조선에 『유신』 독재를 다시 부활시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가차 없이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이런 그가 민주항쟁의 상징인 광주인민봉기를 곱게 불리 없으며 민주를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달가울리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결국 민주를 부정하고 1인파쑈독재를 추구하는 현 남조선집권자의 폭정하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의로운 노래가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세월은 어언 36년이나 흘렀지만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민주를 찬양하는 정의의 노래가 널리 불리워지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이것은 민주화투쟁의 열매들이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히 우고 민주화의 시계가 멈

추어선 인권동토대 남조선의 슬픈 현실이다.

어제도 오늘도 민심은 독재권력을 용서치 않는다. 그것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 지난 4.13 『국회』 의원선거였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남조선집권자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자그마한 죄의식도 없이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민의에 파렴치하게 계속 역행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와 광주시민들이 요구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한사코 가로막은 이번 횡포가 그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것이 자유와 민주에 대한 인민들의 열망의 분출이다. 그 열망은 독재를 불사르며 남조선 사회에 민주화의 꽃을 다시 피우게 할 것이다. 그 때 항쟁의 노래, 민주화의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은 자유롭게 남녘 강산에 울려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반역통치유지를 위한 민심기만술책

남조선에서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비서실을 개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는 등 4월 『국회』 의원선거에서 당한 참패의 후파를 수습해보려고 분주탕을 펴우고 있다.

이미 공인된 것처럼 지난 4월에 있은 『국회』의 원선거결과는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 만을 일삼아온 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분출이였고 준엄한 심판이였다.

그런데 여기에 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반성을 할 대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또다시 오그랑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편놀음을 통해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

책조정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의 자리에 들어앉힌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수 있다. 우선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새로 임명된자로 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현 집권자를 당선시키

는데 한몫 단단히 한 인물이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자들 역시 현 집권자의 『대통령』 출마에 『공』을 세우고 『경제분야조력자』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다. 이런 인물들이 갑자기 돌변해 『정권심판』을 주장한 민심의 요구를 대변하여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리는 만무하다. 결국은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대며 생색을 내도 그 식이 장식이라고 반역통치 그 자체가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연극을 꾸미고 있는가. 결론은 명백하다. 어떻게 하나 민심을 기반하여 반역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현 집권자는 선거패배의 책임을 제스스로 걸며 지게 되면 완전히 『식물대통령』으로 전락될수 있다는데로부터 처음에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개편은 당분간 없다.』고 뺀쳐냈다. 하지만 선거패배의 막심한 여파로 보수세력위축, 『국정』 운영 암담, 재집권 전망불투명 등 전반적형세가 불리하게 번져지게 되자 청와대와 내각의 『기강해이』를 막는 문제가 급선무로 나섰다. 민심의 예리한 눈초리를 모면하는 것도 문제였다. 결국 새로운 인물들로 비서실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심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하며 대세를 거스르는 반역통치에 기를 쓰고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 화해 분위기에 찬 물끼얹는 총포성

지난 12일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일대에서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벌려놓고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대며 전쟁망기를 부리였다. 그런가 하면 6월 말부터 하와이해역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탄도미싸일방어 훈련을 한다고 내놓고 떠들어대고 있다.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계는 최근 공화국이 내놓은 자주통일로선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보내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공화국의 쿄앞에서 위험한 불장난 소동을 벌리고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협훈련을 감행하려 하는 것이 무엇을 노린 것인가는 누가 보아도 뻔하다. 한마디로 절세위인의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 제시로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민족적화해분위기와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기의 찬물을 끼얹으며 정세를 계속 대결과 긴장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서해 5개 섬일대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수역이다. 이곳에서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포탄이 오가고 사상자들까지 발생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불이 달리면 터지는 학악더미와 같은 이곳에서 또 다시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것이야말로 겨레의 평화지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자칫하면 정세를 파국적국면으로 몰아갈수 있게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미싸일위협』이니 뭐니하며 그 누구와 련합훈련을 벌리려 하는 것도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에 대한 공격능력을 높이

려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엄중한 행위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누가 전쟁과 동족대결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여 군사적도발과 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이는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 인권옹호에서 울리는 소리

### 《입술을 앙다문 수백, 수천명》

김순자(가명)씨는 끝내 눈물을 쏟았다. 마디마다 힘을 실어 음절을 밸을 때마다 미처 감추지 못한 울음이 함께 흘러나왔다. 그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언제부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만큼 기침이 날기 시작했지만 그게 가습기살균제때문일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급성천식진단을 받고 련이어 폐염, 기관지염, 후두염을 앓으면서도, 병원에서 약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숨이 끈 떳떳하게 릴것 같은 두려움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던 순간에도 가습기만은 끄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겨울쯤 누군가에게서 가습기 가 호흡기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사용을 중단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사건이

온 언론을 뒤흔들었죠. 그제야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아이에게도 이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창 뛰어놀 나이가 된 아이는 어느 날 김씨를 불잡고 『엄마, 나 숨 좀 쉬게 해줘. 여기가 너무 답답해.』 하며 가슴을 썼다. 숨 못 쉬는 고통을 먼저 겪은 엄마로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일이었다. 그리고 정밀진단 결과 아이의 몸속 특정장기에서 섬유화가 진행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아직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희귀질환이였다. 의사들은 김씨에게 『섬유화가 더 진행되면 실명이나 뇌손상, 외모변형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 몸속 어느 신경에 영향을 미치느

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부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지켜보는게 김씨에게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건 섬유화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를 위해 나설 때까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구제를 시작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아이를 위해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입술을 앙다문 엄마, 아빠가 수십, 수백, 수천명이다.

(남조선잡지 『주간 동아』 2016년 5월 4일호에서 전재)

## 자멸의 길로 질주하는 어리석은 망동

지난 17일 남조선집권자는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미국지역 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라는데서 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북의 도발』, 『강력한 재재와 압박』, 『자멸』 하며 비린청을 듣고 있다.

이보다 앞서 어느 한 외국수반을 만난 자리에서는 『단호한 대북립장』이니 뭐니하며 동족에 대한 압박공조를 구걸해나섰다.

이로써 남조선집권자는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 상태에 몰아넣은 죄악에 대해 사죄는커녕 반공화국대결을 변함없이 추구하려는 흥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집권자의 행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언제 봐야 때없이 동족을 겨누어 독설만 쏟아내는 그 불쌍사나운 입이 문제이다.

그 짚은 혀가 오늘의 북

남관계파국을 빚어냈고 그 자신에게도 재앙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현 집권자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을 나불거리며 동족에 대한 험담과 입방이질로 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대세도 가늠해 볼줄 알고 세상돌아가는 형편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북남관계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해치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책동으로 하여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하지만 공화국은 통일의 미래를 결정할 오늘의 한결이 중요하기에 국악무도한 대결책동이 범람하는 속에서도 모든 것을 덮어놓고 다시금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참다운 실천적방도들을 대변하게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온 겨레의 폭풍같은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지 않아.

공화국은 오늘과 같은 중대한 정세국면에서 민족의 제일중대사인 통일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일념에서 파지를 불문하고 남조선당국에 선의와 아량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그 손을 잡는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조국통일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혁사를 함께 쓰나갈수 있지만 끝끝내 뿐리치고 등을 돌려댄다면 어떤 결과가 차례지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책동을 계속하는 것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막고 있다. 그 손을 놓으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조국통일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혁사를 함께 쓰나갈수 있지만 끝끝내 뿐리치고 등을 돌려댄다면 어떤 결과가 차례지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김연희